



김 현 진

(영어영문학과 교수)

이번 호 느티나무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김현진 교수와의 기념 인터뷰를 마련하였다. 김 교수는 중세영문학 전공으로, 서양 문학, 특히 근대 이전 서양 문학을 통해 21세기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창의적/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윤리를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미국 텍사스 A&M 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“The Knight without the Sword: A Social Landscape of Malorian Chivalry” (1998)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, 2002년 본교 교수로 부임하였다. 주요 연구로는 「초서의 ‘나약한 수소’ : 『기사 이야기』 다시 읽기」 (2008), 「로맨스, 성형 그리고 탈근대의 자아」 (2012), 「참수의 윤리 공포, 여성, 중세 로맨스」 (2013) 등이 있다.

- 영국의 중세문학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,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

영국 중세문학이기는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서양 중세문학을 하고 있어요. 영문학뿐만 아니라 불문학, 이탈리아 문학, 사실 이 당시 영문학이 프랑스 문학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같이 보는 편이에요. 제 전공분야는 아서왕 로맨스예요. 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만들어졌는데요, 프랑스에 중요한 텍스트가 더 있을 수도 있지요. 최근에는 17세기의 존 던이라는 시인의 시를 번역하고 있기도 하고요, 아서왕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에 대해 이미 쓴 논문도 있고,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낼 계획이에요. 우리시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이런 분야와 연계시켜서 쓴 논문도 있고, 새로 쓰는 논문도 있어요. 문학이라는 게 누구나 아는 언어는 아니잖아요. 문학적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(저는) 낯설고 신성한 게 문학적 언어라고 생각해요. 이런 면에서 감수성이 (그때와는) 많이 다르지만, 중세문학의 언어가 굉장히 문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 사상사나 인간의 감정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에 맞춰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거든요, 여성의 역사도 그렇고요. 중세문학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볼 수 있게끔 해줘요. 하지만 해결책을 주지는 않죠.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

- 해당 학문을 연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?

대학원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, 저는 고1 때부터 영문과에 오고 싶어 했어요. 영어를 제일 잘 했고, 외국문학을 알게 되면 우리 문학을 아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. 대학에 와서부터 바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, 이런저런 수업을 듣다 보니 3학년이 될 때쯤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엔 현대시나 현대소설에 관심이 있었는데 모르는 것을 자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..., 사실 석사논문은 워즈워스를 썼어요.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에 쓰인 작품이거든요. 근데 그걸 쓰는 도중 이미 더 과거의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, 호기심에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. 결국 (중세라는) 굉장히 ‘낯선 땅’ 에 가게 됐죠.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. 어떤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‘저런 곳에 살고 싶다’ 는 것과는 다르잖아요. 예술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는 기이한 것을 보며 느끼는 ‘美’ 가 있죠. 아주 다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, 그럼에도 문명화된 곳이고, 제가 직접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학 텍스트나 중세에 관한 역사책을 읽다가 (이 공부들)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듣고 좀 당황한 게, 저는 생각보다 제 연구가 ‘중세’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‘중세’ 라고 따옴표를 붙여버리면 이게 더 보호받아야 할 학문인 거 같고 희소 학문인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생각해보면, 로맨스라는 장르만 해도 요즘 로맨틱 코미디, TV드라마, 사실 대부분의 대중서사가 그것(중세 로맨스)을 따라가잖아요. 그런 라인이나 패턴들이 변한 것도 있지만 안 변한 것도 있고..., 변한 것이든 안 변한 것이든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.

- 이번에 교육상을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영광스러운 상인데, 받고 나서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. 부담감이 더 생긴 게 사실이고, 누가 (제가) 상을 받았다는 걸 안다 그러면 불편한 것도 있고요. 자격이 안 되는데 상을 타서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
-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?

나이가 들면서 연구력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요,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싶고요. 다 끝나고 퇴임할 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나를 진작에 다 소진해서 겨우겨우 가르치다 끝나는 게 아니라, 끝까지 교육자로서,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, 내가 최선을 다 하고 지금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가 들면서 연구력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요,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싶고요. 다 끝나고 퇴임할 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나를 진작에 다 소진해서 겨우겨우 가르치다 끝나는 게 아니라, 끝까지 교육자로서,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, 내가 최선을 다 하고 지금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